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00)(10/1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4 장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임, 10-12 절

약 1:14 -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 106:14 -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딤편 6:17-18 -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막 10:38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 55:2 -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0. 본성은 탐욕스러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것을 애지중지한다. 반면에, 은혜는 정직하고 공평하며, 자기 것을 챙기는 짓을 하지 않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여긴다(행 20:35).

11. 본성은 사람을 피조물들과 자신의 욕심과 헛된 것들로 이끌어서, 그런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 반면에,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과 미덕들로 이끌어서, 피조물들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멀리하게 만들며, 욕심의 소욕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을 절제하게 만들며,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12. 본성은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해 줄 어떤 외적인 위안거리를 갖고 싶어 한다. 반면에,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받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최고의 선 안에서만 기쁨을 얻고자 한다.

말씀과 해설:

9) 본성의 사람은 탐욕을 품고 집착하며 이기적으로 행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탐욕을 내려놓고 주기를 좋아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한다. 최악된 욕심의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탐욕이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였다. 약 1:14 -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시 106:14 -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바울은 옛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욕심을 언급했다. 엡 4:22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다. 탐욕의 인물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기를 좋아한다. 잠 3:27-28 -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딤편 6:17-18 -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향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 놓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신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길 줄 안다.

10) 본성의 사람은 이 세상과 물질과 헛된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며 영적인 가치를 늘 추구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늘 있으면서도 주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속적 출세와 높은 자리를 탐하였다.

막 10:35-38 -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속에 빼앗겼다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완전히 달랐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좇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11) 본성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며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 사 55:2 -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시 63:1-5 - 1.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최고로 많이 누린 사람 중의 하나인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면서 청년의 때에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전 12:1-2 -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탐욕과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성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이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2.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며, 그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요엘, 채희철 선교사님(미얀마), 정후란시스 선교사님(미국), 최아브라함 선교사님(파키스탄), 태일 선교사님(터키, 이란)의 가정과 사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